

미국 유대인 <유대인 생활 철학 1 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라고 하면 유대인이고, 가장 질투의 대상도 유대인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며, 나의 구주 예수도 유대인이다. 모든 국가와 민족의 비교와 연구 대상이지만 그들의 세력은 점점 커져가고 세계의 지배력은 점점 강화된다. 4년전에 나는 유대인에 대한 칼럼을 2개월여에 걸쳐 쓴 적이 있다. 유대인 탐구, 유대인의 힘, 유대인의 교육열 등을 주제로 썼는데, 이번에 쓸려고 하는 내용들은 유대인들의 생활 철학이나 사고 방식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불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같이 힘들게 사는 서민들은 살아 남을 방법이 있다면 모방을 해서라도 따라하고 싶기 때문이다. 괜한 경영철학이나 성공전략, 대박난다는 투자전략 등은 경기가 좋을 때나 좀더 많이 벌기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불경기에서의 생존전략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구박과 시련을 많이 받은 그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지, 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들의 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두면 어려운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회에 걸쳐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의 자료는 김옥씨가 쓴 <탈무드에서 마크 저커버까지>와 육동욱씨가 쓴 <유대인처럼 성공하라>에서 인용함을 밝힌다. 먼저 유대인에 대한 기초상식을 위해 미국 유대인 역사부터 시작해보자. 4년전 나의 칼럼 서문이다.

미국에 이민 오면 유독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유대인에 대한 막연한 동경부터 그들의 교육열, 종교관, 사업관련 정보 등 일관성 없는 단편적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세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을 연상하여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노, 고리대금업자, 악덕 건물주 등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미국에 와서 가장 의아한 것이 유대인 명절날들은 국경일도 아닌데 학교와 금융기관, 법률회사 등 주요기관들이 모두 쉰다는 것이다. 하루도 아니고 일년의 여러날을 말이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은 친 이스라엘 정책이며 유대인의 선거자금 없이는 미국의 어떤 선거도 치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2008년 미 대통령 양당 후보인 오바마와 메케인 두 명이 유대인 집회에 모두 불려(호출)나가 그들의 이스라엘 정책과 미국 금융정책, 경제관, 안보관 등을 주저리

주저리 보고 하는 것이 언론에 회자되었다. 또 2012년 이란 핵무기 개발을 탄핵하고 핵기지 공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유대 민족 단합대회가 있었는데 그자리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읍저버로 불려나가 종전의 신중론을 뒤집고 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미국 대통령을 마음대로 호출할 수 있는 민족, 누가 상전이고 상왕인지, 마치 야쿠자 전국 조직 집회에 제일 힘센 행동대장이 불려나가 충성 서약을 하는 것 같았다면 너무 비약한건가. 미국의 유대민족은 누구인가?

지구상의 유대인은 약 1,500만 명으로 전세계 인구 60억 기준으로 볼 때 0.25%에 불과하지만 노벨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다. 그 중에 7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그 중에 1/3이 넘는 250만 명이 메트로뉴욕(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3개 주)에 거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세계의 수도인 뉴욕의 심장인 맨하튼은 유대인 거리이다. 미국 전체 인구중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 남짓하지만 소득 수준 400위에 포함되는 유대인의 비율은 24%를 웃돈다. 그 중에서도 상위 40%를 다시 추려보면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이 유대인이다. 미국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온 유대인들은 남북전쟁을 기회로 아메리칸 드림의 초석을 닦았다. 세계 자본시장과 그림자 정부의 좌장인 로스 차일드 가문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몇번의 전쟁과 혁명을 통해 양국 정부의 금융시장과 화폐 발행권을 장악했듯이 미국의 남북 전쟁은 미국 유대인들에게 먹잇감이 되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영화 대사처럼 나열하자면 유대인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남군으로부터 혈값에 총을 사들여 유럽으로 가져가서 상표만 바꾸어 최신 특제총으로 둔갑시킨 뒤 북군에게 되판다. 그런 다음 군용물자를 더 빨리 운송해 주겠다고 철도를 건설하고, 철도를 건설하라고 내준 땅에서 금광과 석유를 채굴한다. 이렇게 번 돈으로 미국 전역에 전신회사를 설립하는데 대표적 기업이 웨스턴 유니온이다.

유대인들은 그레이엄 벨이 발명한 전화를 시작으로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 혁명에 이른다. 전신 전화 사업은 그후 언론사업을 장악한다. 더 나아가 영화사업과 미디어 사업을 장악한다. 현 시대에 이르러서는 델,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 구글, 페이스북 등등, 수많은 컴퓨터 관련 사업과 인터넷 사업, 정보 통신 사업들이 유대인들 소유물이다. 전신

전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탄생한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다. 전신전화의 발달로 도시가 넓어지고 철도를 깔고 전신주를 건설하면서 철강 수요가 급증한다. 그러자 유대계 부호인 카네기 제철소와 기존의 광산들을 묶어 US 스틸이라는 세계 최대 철강기업을 출현시킨다. US 스틸의 대주주들은 유대계 대부들인 로스차일드, 밴드빌트, 모건재벌등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등으로 철도를 건설하고 남은 자재들을 활용하여 백화점, 고층빌딩등을 건설하고, 주요 도시의 빌딩 주인들이 된다. 캐딜락과 포드를 인수하여 자동차 뿐만 아니라, 군함, 탱크, 비행기 등 각종 군사장비까지 생산하게 된다. 그밖에도 파이프라인, 발전소, 대학교 등 닥치는 대로 세운다.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들인 돈을 관리하기 위해 월스트리트에 자금관리 은행들을 집결시킨다. JP 모건, 체이스, 아메리카은행, 체이스 맨하탄 은행,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시티은행, 골드만 삭스, 리먼 브라더스등의 모든 유대계 은행들이 이 당시 설립된다. 이로 인해 1880년대부터 미국 대공황 직전까지 유대인은 미국 산업계의 95%를 잠식하였다고 한다.